

역 보행이 아닌 역 발상이 필요한 때

요즘 6차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귀농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결같이 도시의 각박한 생활을 접고 한적하고 여유로움을 찾아 다소 낯설지만 희망을 품고 농촌을 찾는다. 그러나 막상 귀농해도 아직은 성공 확률이 낮은 단계이다. 어떤 귀농자는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가 하면 구입한 농가주택, 토지 등을 제때에 처분하지 못해 허송세월 하는 사람도 있으니 농촌 생활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 정착하려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텅 비다시피 한 농촌 마을에 귀농자들이 북적댄다면 우리의 농업은 머지 않아 희망 있는 산업으로 재평가 될 수도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온 일부 귀농자들은 “시골에 가서 무얼 심어도 돈 되는 것은 없다”, “동창회에 나가면 농사일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논다고 해라”라는 체험담을 듣다 보면 냉엄한 현실의 벽을 절감하게 되며,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귀농하여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귀농자들은 농사를 지어 역대 연봉과 맞먹는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 귀농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말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성공한 귀농자일수록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 말하면 “역 발상”의 정신으로 도전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귀뜸해준다. 자신들도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헤쳐왔다고 설명하며 역 발상의 중



김 용 화

본지 前 편집장
/본지 편집위원

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한번 몸에 베인 생각과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 이런 역경을 딛고 성공하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역발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매일 겪는 보행과 관련된 일만 보더라도 그렇다. 2010년 7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우측보행을 시작하였으니 어느덧 만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잘 알려준다. 전철역이나 대로변에서 좌측보행 하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논할 때가 있다. 몸에 베인 습관대로 걸으면 정작 규정을 잘 지키며 걷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을 보는 일이 있어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역 보행을 일삼는다. 남이야 어떻든 내 방식대로 역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늘 일정 기간 동안 불편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 1백만 명 수준인데, 계란을 생산하는 총 산란계 수는 2016년 1/4분기 기준 약 7천만수대에 이르러있다. 이중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계군 수는 약 5천만수를 넘고 있어 과잉생산이라 진단하고 있다. 난가가 안정세를 보였던 2014년에 비해 약 20% 이상 초과된 상태여서 저 난가를 유발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산란계 농가 상당수는 “만일 감축하지 않으면 양계장은 “갑”의 입장에 놓일 수 없다”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래서 업계는 그간 저 난가 해결을 위해 자조금 사업 및 감축운동 등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이 감축결의대회가 끝나자마자 기회다 싶어 입추에 가세하는 즉, 역 보행하다가 힐난 받기도 한다. 마치 역 보행을 역발상쯤으로 여겨 감축운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알겠나 생각하기 쉽지만 매월 발표되는 초생추 사료의 집계를 보면 역 보행의 강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산란농가들이 “갑”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격히 무너지는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감축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귀농자들이 하는 말처럼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2014년 연말 기준 계란 개당 평균 생산비는 106원선이다. 최근 농가들이 수취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면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지속한다면 점점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감축운동을 비켜가는 역 보행이 많을수록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는커녕 더 깊이 빠져들게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감지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은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역 보행이 아닌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양계**